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노어노문학회 소식지

2018년 12월 제80호



발행처 : 한국노어노문학회

발행인 : 문성원

편집인 : 한국노어노문학회 총무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수봉관 1313호

전 화 : 031-467-0815

계좌번호 : 하나은행 391-910080-51105 / 예금주: 최정현(한국노어노문학회)

Homepage : <http://www.karll.or.kr>

대표 이메일 : karll21@hanmail.net

차례

권두언	3
회원논단	5
신간안내	7
학회지 발간 안내	8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9
회비납부 현황	15

권두언

《Российск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 среде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라이사 쿨코바(상명대학교)

Дорогие члены Ассоциации!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исать предисловие к ваше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бюллетеню.

Я начала сво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орее в 1998 году. К тому времени я уже 23 года работала в МГУ на кафедр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Но попав в новую для себя страну и в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я поняла, как много у нас,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бщего, 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ак много различий.

Главное сходство между нами в том, что мы -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КИ - являемся фанатам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ежде все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 мы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о-первых, изучить свой предмет как можно глубже, во-вторых, привить такую же любовь к России учащимся, дать им максимум знаний в то время, которое отведено на занятия.

Есть между нами и различия. Прежде всего, Корея - более солнечная страна. В России из 365 дней только 100 дней светит солнце. И пребывание в месте, где так много солнца, создаёт радостное настроение и рождает желание ещё больше работать.

Во-вторых, быт в Корее организован так хорошо, что работающий человек здесь может не думать о бытовых проблемах (хорош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а,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системы общепита и так далее) и может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главном - на своём научном и методическом творчестве.

Но главное, что получают русск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 Корее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интенсивного науч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У специалиста РКИ здесь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близ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языком, типологически не похожим на русский. Например, на фоне других языков становится очевидно, чт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войственна большая вариативность. Причём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 нём есть сосуществующие варианты произношения многих слов, ударение в нём разноместное и подвижное (что создаё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итм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нём много типов интонации (возможна большая интонационная синонимия), также много вариативности в сфере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форм (конкуренция разных вариантов форм падежа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варианты согласования ряда форм),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предложения, особенно если учитывать такое оригинальное явление как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синтаксис. Также многочисленны примеры опущения разных элементов предложения (многие смыслы могут быть выражены не словесно, а имплицитн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а фон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едстает такж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явлением: в нем отсутствует ударение, имеет место налич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форм вежливости, наблюдается большая точность в обозначении цвета, возраста и так далее.

Явные типологические различия не могут не стимулировать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этому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ногих русск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работа над статьями сопостави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 соавторстве с корейскими учёными. Сопоставляя языки (их лексику, фразеологию,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соавторы значительно обогащают лингвистическую науку в сфере сопоставления язык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то корейские коллеги с интересом следят за российской методической мыслью. В Корее организуются совместные методические семинары и конференции. Это вдохновляет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написание новых учебников, которые учитывают многолетний опыт разных педагогов в области РКИ. Так рождается самое главное - националь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пособия, пособия, в которых наилучшим образом отражается специф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фоне корейского, что облегчает

изучение языка.

В заключение я хотела бы пожелать 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ам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в углубленном изуче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создавалось больше нов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для написания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и националь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учебников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회원논단

반성문

김형섭(중앙대학교)

요즘 대학가는 2018년 수능시험 이후 논술과 수시전형 면접과 같은 입시전쟁을 치르느라 매우 분주하다. 3년의 고교생활 결과를 말해주는 수능 시험은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 당사자는 물론 부모와 친지들 모두 긴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며, 그 결과가 대학입학이라는 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 안팎으로 교권(?)을 뒤흔드는 믿기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강남 모 여고에서 벌어진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두 쌍둥이 딸의 시험 부정행위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논산 여교사의 부도덕한 행동 등 웃지 못 할 에피소드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에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게다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커녕,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 찬 분위기를 조성하는 터에 교단에서 있는 나조차도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며 ‘반면교사’의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어 몇 줄 적어본다.

하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보다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다. ‘매 수업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답하기가 부끄럽다. 매번 철저히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야지 하는 생각을 반복하지만, 매번 생각에 그치고 만다. 논문 마감과 학생상담, 다른 잡일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거울 앞에 설 자신이 없어진다. ‘최선을 다하라’고 학

생들에게 요구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한 없이 작아진다. 나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나의 교실 안팎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갖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버티고 노력하며, 꿈을 이루어내는 긍정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의 교육철학이자 목표이지만, 얼마만큼 학생들이 나를 보며 긍정의 힘을 전달받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오늘도 판도라가 열어 제친 상자 속에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희망’인 만큼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다짐하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둘. “교사와 학생사이”

대학시절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사와 학생사이’라는 책을 읽고 발표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대목은 어린 학생이 예방주사를 맞는 날, 선생님한테 와서 울며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떼를 부리는 장면이다. 그 때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 주사 안 아프게 놓아주시라고 편지를 써 줄게~” 그 아이는 그 편지를 들고 가 씩씩하게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이다. 나를 감동시킨 그 한 마디는 늘 기억에 되새기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생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끔씩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문득 내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나만 안 변하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과의 대화와 교감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스스로 마음 한 구석에 숨겨 놓은 비밀 주머니를 털어 놓을 수 있는 대화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선생이 아닐까?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가까운 친구 같은 선생님은 없는 걸까? 아직 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노력해서 찾고 싶다.

셋. “신구(新舊)의 조화”

이젠 어릴 적 배웠던 ‘군사부일체’의 존경과 예우의 믿음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공교육 정상화니 뭐니 하면서 학교교육을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예전의 영예로움과 권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가의 변화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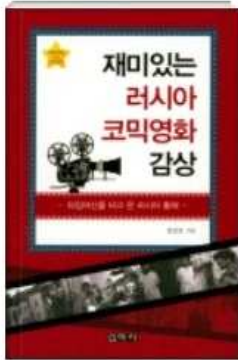


문득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이 떠오른다. 이 그림은 현재보다 훨씬 더 패쇄적인 사회였던 조선시대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훈장이 중앙에 앉아 있고 양쪽으로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앉아 있다. 훈장 앞쪽에는 회초리를 맞았는지, 아님 꾸지람을 들었는지 한 학생이 울고 있으며, 웃는 학생도 있고, 결혼을 한 것 쓴 학생도 보인다. 물론 여학생은 보이지 않지만, 남녀공학이 아닌 것만 제외한다면 예전의 서당 모습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훈장님의 꼬장꼬장한 가르침과 융통성 없는 엄격함, 학생들의 스승에 대한 예우와 존대, 무엇보다도 스승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준 학부모의 역할이 제일 큰 선물인 것 같다. 가끔은 학생을 울려가며 훈육을 하고 글을 가르칠 수 있는 훈장의 절대적 지위가 좀 부럽기도 하다.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과거의 훈장은 모범을 보이는 절제된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을 해 본다. 그래서 옛 것과 지금의 것이 조화를 이루는 신세대 학생과 구세대 교사가 조화를 이루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나의 작은 수업 모토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개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교실의 가르침이다.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했던 훈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는 개성만을 중시하는 요구들이 교실과 학우라는 ‘우리’ 공동체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옛 것의 장점과 현재의 장점을 모아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나와 너의 대립이 아닌 ‘우리’라는 조화, 헛것과 새것이 아닌 ‘신구(新舊)’의 조화로움은 없는 것일까? 해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솔직히 오랜만에 격 없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나름 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 글은 저의 ‘반성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항상 하루하루 성실하게 교육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학계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본받아 ‘현재보다 나은’ 저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간안내



재미있는 러시아 코믹영화 감상

정연호 저

신아사

2018년 7월20일, 13,000원

ISBN : 9788983962829



러시아 정교회 건축과 예술

김상현 저

민속원

2018년 8월31일, 65,000원

ISBN : 9788928512133



파스테르나크의 작품 세계와 닥터 지바코

임혜영 저

고려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8년 6월30일, 각권 27,000원

ISBN : 9788976419620

학회지 발간안내

- 학회지 『노어노문학』은 연 4회 발행됩니다. 각권 제1호는 3월 30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0일에 발행됩니다.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권 제1호는 2월 15일, 제2호는 5월 15일, 제3호는 8월 15일, 제4호는 11월 15일입니다.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를 통한 논문 투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JAMS에 회원 가입을 하여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연회비 및 심사료를 학회 계좌(소식지 표지 참조)에 입금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생회비는 50만원, 연회비는 5만원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료는 3만원입니다.
- 논문게재료는 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만원, 비전임교원 회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면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5만원입니다. 논문게재료는 심사결과 게재 확정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비전임의 기준은 지속적 급여 수령과 퇴직금 유무인데, 모호할 경우 학회 총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 비정년트랙 교수, HK교수 및 HK연구교수는 전임으로, 연구재단 지원 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등은 비전임으로 구분됩니다.

학회지 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

한국노어노문학회는 노어·노문학을 비롯한 슬라브어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학회지 『노어노문학』을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0일, 연 4회 발행한다. 이를 위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논문투고요령

1. **분야:** 노어학, 노문학, 슬라브어학, 슬라브문학, 노어교육학, 러시아 및 슬라브권 문학
2. **종류:** 상기 분야의 연구 논문 및 서평
3. **분량:** 최대 A4 28매 (참고문헌 포함). 초과 시, 장당 2만원 추가 게재료
4. **사용언어:**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약문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논문투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시오.

- 1)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700자 이내)과 맨 뒤에 본문과 다른 언어로 된 요약문 첨부
- 2) 주제어를 한글과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여 첨부
- 3)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4) 논문의 영문제목 및 투고자의 영문 이름표기

* 심사에 통과된 게재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파일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한글과 외국어 요약문, 한글과 영문 주제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연구재단 제출용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작성요령

- 5.0. **논문제목:** 아래에 필자명과 소속을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를 저자명 중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연결저자 포함)와 구별함. 이때 제1저자에는 ‘*’를 붙인다.

5.1. 여백주기: 초기 화면대로

5.2. 문단모양: 초기 화면대로

5.3. 글자크기: 초기 화면대로

5.4. 글자간격: 초기 화면대로

5.5. 글꼴

- 윤명조 120체 (서체가 없을 시, 한컴바탕체로 제출 가능)

- 영어 및 러시아어 Palatino Linotype

- 모든 숫자 Palatino Linotype

5.6. 그 외 주요 사항

- 러시아 작품명 (단편): “ ” 표시

- 러시아 작품명 (중-장편): 『 』 표시

- 직접 인용 문장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 강조 (한글/러시아어/영어 모두) ‘ ’ 표시 (밑줄 혹은 짙은 색으로 강조하지 않음)

- 논문 제목: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저널 및 신문: 모든 언어 자료에서 「 」 표시

- 논문 제목: 15 진하게 (고딕체)

- 챗터 제목: 13 진하게 I. II. III. IV. ... (고딕체)

- 챗터 제목: 서론, 결론 외 ‘들어가는 말’ 혹은 ‘나가는 말’ 등 다른 표현을 하지 않음

- 챗터 소제목: 12 진하게 II-1. II-2. III-1. III-2. ...

- 본문: 11

- 각주: 10

- 본문 내 인용문단: 11 (행간은 각주에서 동일하게 130%)

- 도표, 그림, 사진: 자료 바로 하단에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되,

[도표-1] “러시아 2015년 문학의 해, 모스크바 행사 내용”

[그림-1] “Facebook 자료 캡처”

[사진-1] “톨스토이 생가 사진. 필자 직접 촬영” (2015.08.12.)

- 본문 내 인용 시, 앞뒤로 한 칸씩 띄움

5.7. 각주

[단행본] 저자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1)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p. 24.

2) 루이스 멍퍼드,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p. 201.

- 3) David Dordwell,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 4) В. К. Соколова,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 5) Д. Николаев,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сс. 3–4.
- 6) 김종대, *op cit.*, p. 29.
- 7) *Ibid.*, p. 87.
- 8) David Dordwell, *op cit.*, p. 39.
- 9) В. К. Соколова, *там же.* с. 98.
- 10) *Там же.* сс. 99–100.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 명(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p. 쪽수.

- 1)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p. 38.
- 2) Irina Reyfman,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56–58.
- 3) D. N. Shali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4)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сс. 56–57.
- 5) 김학준, *op cit.*, p. 209.
- 6) *Ibid.*, p. 208.
- 7) Irina Reyfman, *op cit.*, p. 78.
- 8) *Ibid.*
- 9) D. N. Shalin (ed), *op cit.*, p. 100.
- 10) Л. Н. Виноградова и С. М. Толстая, *там же.* с. 223.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p. 쪽수.

- 1)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p. 25.
- 2) John Sulliva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pp. 56–58.

3) И. М. Денисова,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озрения, но 3 (2003), сс. 56–57.

[그 외 문헌]

1)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2)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3)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4)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5.8. 러시아 키릴문자의 영문자 표기: 권장하지는 않음

5.9. 참고문헌 목록 작성

각주를 지양하고 본문에(한노회, 1998: 116–117)로 표기할 경우나 각주로 한노회, 『한국노어노문학 30년 기념논문집』 (서울, 1998), pp. 116–117로 표기할 때나 공히 작성을 권장

6. 참고문헌 작성 요령: 순서는 국문, 논문, 영문 기타 외국어 순서

[단행본] 저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기재하지 않음

김종대.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서울: 다른세상, 2001.

멈퍼드, 루이스. 『기술과 문명』. 문종만 역. 서울: 책세상, 2013.

Соколова, В. К. Ответ. ред.,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фолькло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8.

Николаев, Д. Сатира Гоголя.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Dordwell, David. The Cinema of Eisenstei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5.

[단행본의 한 챕터] 저자. “챕터명.” 편집자(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김학준. “소련 데탕트政策의 논리와 현실.” 김학준 편. 『現代소련의 解剖』. 서울: 한길사, 1981.

Виноградова, Л. Н. и С. М. Толста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вещей: веник (метла) в славянских обрядах и верованиях.” // Символический язык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 РАН, 1993.

Reyfan, Irina. "Prose Fiction." In Andrew Ka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ushki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halin, D. N. (ed). Russian Culture at Crossroad: Paradoxes of Postcommunist Consciousness.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학술지논문]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 호 (년도).

김우승. "러시아 정교의 상징성과 문화적 실재." 『슬라브연구』. 제 13권 (1997).

Денисова, И. М. "Этнос и культура. Зооморфная модель мира и её отголоски в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бзоры. no 3 (2003).

Sullivan, John. "Dukhovnye stikhi among Twentieth-Century Old Believers: Song-books of the Kilin Famil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5, No. 3 (July, 1997).

[그 외 문헌]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중앙일보』. 2016년 1월 17일.

"러 올림픽 위원장 "푸틴 도핑 지원 주장 터무니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421605> (검색일: 2016.01.17.).

"Российская неделя искусств откроется в субботу в ЦДХ."

<http://ria.ru/culture/20160116/1360389606.html> (검색일: 2016.01.17.).

Stephen Kotkin, "The Resistible Rise of Vladimir Putin."

<https://www.foreignaffairs.com/reviews/resistible-rise-vladimir-putin3> (검색일: 2016.01.17.).

7. 제출형식

'아래아 한글'로만 작성하여 제출함. 편집양식을 이행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함. 국문초록은 700자 이내로

8. 제출마감일: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 논문제출시 연회비(5만원)와 심사비(3만원)를 학회계좌에 입금하고, 논문통과 후 논문게재료를 학회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논문심사규정

1. 심사위원회 구성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되 연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이사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국내외 전문학자를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원칙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해당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판정

3.1. '게재 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판정

3.2. '수정 게재'

- ①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수정 게재' 판정
- ②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통과한 후 게재

3.3. '게재 불가'

- ①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 ③ 논문제출자가 심사위원회의 수정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현황

▶ 평생회비 납부자

고 일, 곽태석, 강덕수, 강명수, 강홍주, 권철근, 기연수, 김경태, 김군선, 김근식, 김기열, 김문황, 김상현A, 김선진, 김선명, 김성완, 김성일, 김세일, 김신효, 김원한, 김재환, 김정아, 김정일, 김준석, 김진규, 김 혁, 김현택, 김홍중, 문석우, 문성원, 문준일, 박미령, 박선영, 박춘은, 박태성, 박혜경, 배대화, 백준현, 서상국, 석영중, 송정수, 송헌배, 신혜조, 심용보, 안병용, 안병팔, 안상훈, 안 혁, 양영란, 양창렬, 오종우, 유승만, 유학수, 윤경숙, 윤우섭, 이기주, 이길주, 이덕형, 이명자, 이상룡, 이수경, 이영범, 이용권, 이은순, 이종진, 이진아, 이진희, 이형구, 이희숙, 이희원, 장 실, 장혜진, 정막래, 정보라, 정연호, 조성연, 조혜경, 차지원, 채혜연, 최건영, 최종규, 최영미, 최윤락, 최인선, 최진석, 추석훈, 표상용, 한만춘, 한예경, 한 용, 한지형, 함영준, 홍기순, 홍대화, 홍상우, 홍정현, 황성우.

분납: 강수경(10만원), 김태옥(20만원), 박영은(20만원), 윤새라(35만원), 천호강(25만원)

▶ 2018년 연회비(5만원) 납부자

김민수, 김연경, 박미정, 손현익, 윤서현, 윤현숙, 이지연, 장디아나, 최정현, 서유경, 박현정, 홍선희, 최은경, 이경완, 홍정현, 김태진, 이성민, 전해진, 김희연

※ 회비 납부 현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총무국(karll21@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